그 사람 지금은

(28) 해남 출신 가수 오기택씨 〈하〉

"뇌출혈로 접은 노래 다시 시작해야죠"

가수로서 성공한 오기택(64)씨는 80년대에 들어오면서 골프에 빠졌다. 1980년 2월 그는 한 친구로부터 골프를 배워보라는 권유를 받고 골프에 입문했다.

"꽤 부자인 친구가 1년 안에 싱글을 하면 원하는 것을 다 해준다고 해서 내기를 한다는 기분으로 골프를 시작했어요. 원래 운동을 좋아했으니 자신도 있었지요. 그래서 여의도의 중앙골프연습장에서 홍영표 프로에게 레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년이 채 안돼서 싱글을 쳤어요. 그런데 1년 만에 정작 내기를 했던 친구와 함께 안양CC에서 골프를 친 날은 95개를 쳤어요"

이렇게 시작한 골프에 오씨는 푹 빠져버렸다. 당연히 가수 생활도 등한시했다. 80년대 중반부터는 아마추어 골프대회에 나가기 시작했다. 1986년부터 1991년까지 연예인 자선골프대회에서 6년간 우승하는가 하면 1988년 5회 광주C.C와 1989년 11회 이리C.C 챔피언에 오르기도 하는 등 각종 아마추어 대회에서 우승 내지 2위의 우수한 성적을 냈다.

또 해외대회에까지 나가 1990년 싱가폴 롤렉스 오픈 아마부에서 우승, 1994년 필리핀 쏘니컵오픈 미드아마부에서 준우승을 각각 차지했다. 뿐 아니라 전국체전에는 전남대표 선수로 출전해 단체전에서 88년 은메달, 90년 금메달을 땄다. 때문에 주변에서는 아예 프로로 전향하라는 권유를 받기도 했단다.

가수 오기택(맨 왼쪽)씨가 1989년 9월 제70회 전국체전에 골프 단체전(일반) 전남대표로 출전해 준우승을 한 뒤 동료 선수, 협회 관계자들과 함께 만세를 부르고 있다.
〈오기택씨 제공〉

가요무대 등 방송출연 요청 있지만 아직은 동작이 부자연스러워 거절

약 력

- ▲1943년 해남군 북일면 출생
- ▲59년 해남중, 서울 성동공고 졸업
- ▲61년 제 1회 직장인 콩쿠르대회 1등 입상
- ▲63년 '영등포의 밤' '가버린 영아'로 데뷔
- ▲79년 한국연예협회 가수분과위원장
- ▲90년 싱가포르 렉스오픈 아마추어 1위
- ▲2006년 반야월 가수예술공로상 수상

오씨에게 골프와 함께 가장 큰 즐거움의 원천은 낚시였다. 서울 스튜디오 녹음실의 최성락씨로부터 갯바위 낚시를 배우면서 그는 틈만 나면 바다 낚시를 다녔다. 특히 연말이면 혼자 추자도 인근으로 갯바위 낚시를 다녔다.

운명의 날인 1996년 12월 30일에도 그는 제주 추자도로 혼자 낚시를 떠났다. 10일간 낚시할 수 있는 야영 준비물을 챙기고 도착한 곳은 상(上)추자의 '염섬'이라는 무인도였다. 그는 도착하자마자 50㎝ 크기의 감성돔 3마리를 낚았다. 그런데 가지고 간 라디오에서 다음날 폭풍주의보를 알렸다.

철수해야겠다는 생각에 짐을 챙겼다. 그런데 매일 한 번씩 다녀가는 낚싯배가 오지 않았다. 31일에도 그리고 새해 첫날에도 배는 소식이 없었다. 모든 것을 잊고 지내고자 두고온 휴대폰이 아쉬웠다.

"2일 아침, 폭풍주의보가 해제됐다는 라디오 뉴스를 듣고 '배가 곧 오겠지'하며 다시 짐을 꾸렸습니다. 그리고 당시 잡은 물고기를 아이스박스에 넣으려 하니까 들어가지 않아서 말려서 가져갈 생각으로 바닷가로 내려가 고기를 손질한 뒤 텐트로 돌아와서 밥을 안치다가 현기증을 느끼며 바닷가 비탈 쪽으로 쓰러졌습니다. 몸이 말이 안 들으니 자꾸 바닷가 쪽으로 내려가다가는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 오른손으로 소나무를 잡았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오른팔의 힘이 빠지자 나머지 한 손으로 가까스로 당시 입고 있던 트레이닝복의 허리끈을 풀어 소나무에 오른손을 묶어 버렸다. 그리고 그는 배가 고프면 솔잎을 씹었고 잠을 자지 않기 위해 큰 소리로 노래 수백 곡을 불렀다.

낚싯배가 온 것은 1월 3일 오전 10시.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극적으로 구출된 오씨는 제주경찰청 헬기로 긴급 후송돼 제주 한라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았다. 그리고 4일 오후에는 대한항공편으로 서울 성모병원으로 옮겨져 뇌수술을 받았다.

"뇌출혈이지요. 혈압이 높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의사가 약을 먹으라는 말을 하지 않아 약은 먹지 않고 있었어요. 해병대에서 고된 훈련을 받았던 정신과 꾸준히 닦아온 체력 때문에 버틸 수 있었어요"

오씨는 수술 경과가 좋았고 이후 꾸준한 치료로 몸이 나아졌다. KBS 가요무대에서 노래도 불렀다. 하지만 지나친 안심이 화를 불렀다.

"몸이 좋아지자 또 다시 술을 하기 시작했어요. 원래 술을 좋아하다 보니 술 친구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술 마시고 몇 번 넘어지면서 뇌에 충격을 줬던지, 다시 마비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오씨는 여전히 독신이다. 불편한 몸을 이끌고 식사와 빨래, 청소 등을 손수 해결하고 있다.

"결혼하지 않은 것이 많이 후회됩니다. 착하고 좋은 여자들도 많았는데. 인기가 영원히 있을 줄 알았지요. 너무 일이 잘 되니까 세상을 몰랐어요. 결혼했더라면 연말에 바다낚시 갈 일도 없었을 것이고, 치료 후에 술도 그렇게 많이 마시지 않았겠지요."

그는 여전히 재활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 10여년을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재활치료를 받다 보니 어려움이 많지만 주변 친구들이 조금씩 도와줘 근근이 생활하고 있다.

"인기 좋았을때 세상 모르고 살았죠 결혼 않고 살아온 것 뒤늦게 후회"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노래도 부를 수는 있어요. 가요무대 등에서 출연 요청도 오지요. 하지만 나가지 않습니다. 동작이 부자연스러워 감정 처리를 못 하면 노래의 이미지를 망치거든요"

가요계 후배 중에는 최헌, 최백호 등이 찾아온다고 했다. 또 최근에는 반야월씨를 만났는데 "니같이 노래 잘하는 가수가 한국에 어딨노?"라며 완쾌를 기원해줬다고 한다.

오씨는 나이가 비록 60대 중반이지만 가수로서의 재기의 욕은 강하다. "1996년 '남산아 모란봉아' '당신의 그늘' 등 노래를 취입했지만 사고가 나 인기를 얻지 못했어요. 반드시 재기해서 그 노래들을 히트시키고 팬들에게 보답하는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사진=고경석기자 ksgo@kwangju.co.kr

■ 전라도 역사이야기 -위도

50년전 조기파시 열리던 곳 율도국·인당수 전설도 있어

횟집시가지가 된 격포항에서 전북 최대 섬 위도로 향했다. 14㎞ 떨어진 파장금 선착장에 40여분 만에 도착했다. 위도는 50년 전 까지만 해도 이맘 때 조기 파시(波市)가 장관을 이뤄 흑산도, 연평도에 버금갔던 곳이다.

어선 700여척이 4천만 마리의 조기를 잡아 파시철에는 접대부가 400여 명이나 됐다고 전해진다. '영광굴비'라는 이름은 위도가 영광군에 속했을 때 얻은 이름이라고 한다.

위도는 조선시대 부안 땅이다가 1896년 설군된 지도군 소속이 됐다. 1914년 영광군에 편입된 후 1963년 다시 부안으로 넘어갔다. 고슴도치를 닮아 '위도(蝟島)'라 칭했으며, 규모는 해안선 길이 36㎞, 30개 섬 포함 14㎢에 달한다. 가장 높은 망월봉(255m)에 오르면 선운산, 고군산, 변산, 칠산이 한눈에 들어온다.

위도는 홍길동 율도국과 심청 인당수 전설이 전해지는 섬이다. 1931년 태풍으로 500여 척의 배가 난파됐고, 600명이 목숨을 잃었다. 1993년 서해훼리호 침몰로 292명이 희생됐고, 얼마 전에는 방폐장 건설과 관련하여 회오리바람이 몰아친 곳이기도 하다.

진리에 있는 위도진 관아.

1682(숙종8)년 군사요충지로 지목돼 첨사(종3품)가 고군산, 우포, 다경포, 법성포, 금모포, 군산포, 지도까지 관할하여 제2우수영과 같았다. 옛 가리포(加里浦)였던 진리(鎭里) 156-3번지에는 관아(官衙) 건물 한 채가 남아있으며, 샘 곁에 빗돌 6기도 있다. 1982년 유형문화재 101호로 지정됐다.

1872년 지도에는 치도(致島)에서 진리로 접어들어 홍살문을 통과해 2층 누문이 보인다. 좌우에 이청(夷廳)과 사령(使令)청, 그 안쪽에 교(校)청, 아사, 창고, 객사가 배치됐고, 창고 뒤편에 군기고도 있다. 선소리(船所里)에는 어변정(禦邊亭)과 함께 전선, 병선, 사후선 2척이 그려져 있다.

본섬 마을로 시루미(甑九味), 소돌목(山猪·작은 돼지목), 살막금(箭幕九味), 깊은금(深九味), 대리(大猪項)가 표기됐고, 정금도와 선소간은 민물 때 수심이 5장(丈)에 달하며, 썰물 때는 육지로 변한다.

심구미 내원암(內院庵)은 숙종 때 자장율사가 창건한 선운사의 말사다. 자궁 형국에 탱화, 향나무, 인동초, 백일홍이 유명하다. 풍어기도처로 용왕각 역할도 했던 터로 전해진다.

대리 띠뱃놀이는 풍어기원 민속으로 1978년 전국대회에서 대통령상을 받았고, 중요무형문화재 제82호로 지정됐다. 진리 보건소 뒷편에는 100여 그루의 후박나무 숲속에 당집이 있고, 근처에 흰색상사화 군락지도 있다.

현재 800호 1천500명이 살고, 40척 배가 멸치, 꽃새우, 홍합 ,아구, 쭈꾸미, 우럭을 잡아 약 100억원의 어획고를 올린다.

/김경수(사) 향토문화진흥원장